

본문: 요한복음 1 장 14-18 절

제목: 말씀이 육신이 되다.

1.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이 궁극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육신이 궁극적인 것일까요? 영이 본질적인 것이고 육신은 본질적이지 않고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인가요? 많은 종교들이 육신과 영의 관계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인가를 가려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범아리안(Pan-Aryan) 종교의 특징은 물질이나 육체보다 영을 우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종교와 철학에서는 육신과 물질 세계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의 그림자로 이해합니다. 영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야말로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이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을 가두어 놓고 있는 영혼의 감옥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이해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교들에서는 육체를 벗어버릴 때 육체로 겪는 이 세계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고 육신을 벗어 던져버릴 때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적어도 구약성경과 요한복음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성경과 요한복음은 영과 물질, 영과 육체를 동일하게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영, 혼, 육이 조화롭고 통합적으로(wholistic) 이뤄진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온 우주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은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양한 차원에서 표현되지만 모두 육체와 물질 세계를 통해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모든 세계 가운데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의 자손이 수 없이 많아질 것이고, 그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영적인 것이라기 보다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가깝습니다. 파라오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땅이 곧 구원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구약성경의 기초를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은 '거룩한 유물론'을 말합니다. 영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거하실 처소가 육체의 세계라고 이해합니다. 요한복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의 상태로 두지 않고 육체의 세계 속에 와서 살겠다고 집요하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합니다. 거룩한 유물론이란 영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물질을 매개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의 영만 사랑하는 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이 몸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도 안 잡고 포옹도 안하고 선물도 주고 받지 않으면서 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요한 1 서 3 장 17-18 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진짜 사랑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2.

그런 의미에서 14 절은 엄청난 대항명제(anti-thesis)를 당시 사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로고스)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로고스가 사룩스(육신)가 되었고 그 사룩스(육신)가 우리 가운데 dwell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종교에 젖어든 로마 식민지 사람들이 이해하는 육신은 궁극적이지 않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사룩스가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명제였습니다. 이 표현은 영지주의에 대해 경계하며 선포된 말씀입니다. 영지주의란 이 세계를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인 Gnosis(영지靈智)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참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가현설 (Docetism)이라고 부르는 주장입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짜로 육신을 입은 것이라 주장한 것이죠.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이 선포를 통해 그리스 종교와 영지주의에 대한 대항명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 “Skeno-o (σκηνώω)”를 우리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스케노오오는 ‘장막을 치다(tabernacle)’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갖는 엄청난 함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로부터 벗어나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장막은 바로 거룩한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처음으로 제작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고 모세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제조했죠. 출애굽기 40 장 34-35 절에는 성막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어떻게 성막 가운데 나타났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텐트(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다시 한 번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텐트가 아니라 건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올렸습니다. 열왕기상 8 장 11 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11 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스라엘은 보통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B.C. 586 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60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 가운데 머물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고스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겁니다.

3.

요한복음 1 장 14 절은 600 년 동안 떠나 있던 야웨의 영광의 회복과 복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표현은 결국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육체가 성전이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벌어졌다는 뜻이죠. 성전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화해와 죄사함입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죄사함이 일어나죠. 그리고 성전에서는 병자들이 치유되고 토라를 통한 가르침이 있었죠.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든 사람이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겁니다. 이 600 년의 공백과 그 간절한 기다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순종을 행하시자 엄청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보니까 은혜와 진리로 표현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발산하는 영광을 분광기에 통과시켜 보니 은혜와 진리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18 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아버지와 의 충분한 교제와 사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총만하게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진리를 아들이 드러내신 것이죠. 은혜와 진리의 묶음은 구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묶음입니다. 히브리 말로 은혜는 헤세드(hesed)이고 진리는 에메트(emet)입니다. 시편 85 편 10 절입니다. “**사랑(헤세드)과 진실(에메트)**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이 말씀에서 사랑이 헤세드이고 진실이 에메트입니다. 실은 은혜와 진리로 번역돼야 맞습니다. 시편 92 편 2 절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헤세드)**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에메트)**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잠언 3 장 3 절입니다. “**인자(헤세드)와 진리(에메트)**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 속 깊이 새겨 두어라.” 이 구절에서도 인자가 헤세드이고 진리가 에메트입니다. 사무엘하 2 장 6 절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헤세드)과 성실(에메트)**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도 헤세드와 에메트가 쌍으로 쓰이는데 한국말로는 모두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특징이자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한 가지씩 좀 더 깊이 살펴 볼까요?

은혜로 번역된 카리스(Karis)는 히브리말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작년에 많이 살펴 본 말이죠. 언약적인 신실함(covenantal faithfulness), 변함 없는 사랑(steadfast

love)으로 번역되는 말이죠. L로 시작되는 두 단어를 떠올리라 했죠. Love and Loyalty, 그러니까 변함없이 충성된 사랑이 바로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는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갱생시키는 새창조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여 갱생시키는 힘이 은혜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바운더리를 율법이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인 거죠. 율법도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은혜가 얹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위의 은혜인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 겹겹의 은혜,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이 은혜는 마르지 않고 죄인들을 갱생합니다. 레미제라블 1편의 미리엘 신부가 바로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잘 표현해 줍니다.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이 그의 주교관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의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발장 안에 꿈틀대는 야수성을 보았지만 그를 기꺼이 식탁으로 맞아 들이고 가장 좋은 방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가 은춧대를 훔친 것이 발각되어 경찰에게 끌려 왔을 때 그는 은혜 위의 은혜로 장발장을 환대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선물로 준 것이고 은쟁반은 왜 안가져 갔는지 오히려 반문하죠. 이 엄청난 은혜의 힘에 압도되어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은혜란 다름 아닌 이런 갱생과 새 창조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경험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 위의 은혜였습니다. 헤세드 위에 헤세드입니다.

#### 4.

진리란 무엇입니까? 지난 주에 헬라어에서 진리란 뜻의 Aletheia 는 concealed 되지 않고 드러난(revealed) 것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Emet)'입니다. Emet 는 Aman 에서 나온 말인데 아만은 진실, 진리, 진실로 그렇다 등의 뜻을 갖습니다. 에메트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성품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truthful, faithful, reliable' 이런 뜻이죠. 헤세드의 태도를 변함 없이 영원히 유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메트를 쓰는 겁니다. 히브리 말에서 에메트는 하나님이 하나님다움을 꾸준히 유지하는 인격적인 통일성과 통전성(integrity)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에메트는 "뭉이다. 결속되다. 동여매다." 라는 뜻도 가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동여매어져 결속된 상태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하나님께 결속시키는 힘을 진리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 장 31-32 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고 동여매져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이 오히려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깊은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테그리티에 연결되고 묶여 있을 때 우리 삶 안에도 그러한 인격적인 통일성과 인테그리티가 나타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진실한 태도가 꾸준히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의 뜻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갱생시키는 힘이 은혜이고 그 은혜의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실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참혹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자를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으실 만큼 총만하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반역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과 총만한 사랑을 파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7 살 때로 기억됩니다. 텔레비전에서 핵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이 세상이 핵전쟁으로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날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악몽에 시달렸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세상을 향한 무한한 긍정과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문제 투성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총만하신 은혜와 진리가 이 세상을 갱생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의 지난한 노력과 실천이 따라야 하는 문제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총만한 사랑과 진실한 그분의 성품이 죄악 된 인류를 갱생하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5.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으신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총만하신 예수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장막을 치는 것과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매우 구약적인 언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의 조합이란 것을 알게 됐죠. 또한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와 우리 육신을 부정하시지 않고 무한히 긍정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거룩한 유물론을 잊지 마십시오. 영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은 물질을 매개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육신과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계를 즐기십시오. 나무, 꽃, 새소리, 설경, 따사로운 햇빛, 밤하늘의 별자리 등 아름다운 이 대자연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으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물질과 몸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만 말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장막을 입히지 않으셨다면 가짜 사랑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성육신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도 성육신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물질로 표현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더 많이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세요. 사람은 자신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하루에 열 번은 허그를 받아야 한대요. 부부 사이에도 더 많이 허그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육체 노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 위의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좋지 않은 면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들만 말하다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서로 영향을 받아 함께 마음이 거칠어지게 마련입니다. 은혜란 말 헤세드는 갱생의 힘입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들까지 새롭게 만드는 힘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문제야. 이런 것때문에 발전이 없어.’ 그런 시각보다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갈 6:2).”** 비난과 불평보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목상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사하라 사막처럼 메말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나에게 진실한지를 자꾸 자꾸 목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목상하고, 매일 나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워주셔야 채워진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은혜 받으려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갱생의 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는 태도인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 <소그룹 나눔>

예수님의 사랑은 성육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육신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물질을 매개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육신적인 사랑은 무엇이 있을지 구체적인 적용을 나눠봅니다.